

재미와 의미 함께하는 '바지저고리'의 역사

서울 YWCA 제정 '우수만화작가상' 연거푸 받은 이두호씨

역사극화 작가 이두호(51)씨의 만화 작품들을 가리켜 어느 중견 문학평론가는 사석에서 몇차례에 걸쳐 "예술의 경지"라고 격찬한 적이 있었다. 그가 내놓은 한말 보부상들의 애환을 담은 전10권짜리 「객주」나 요즘 모 스포츠신문에 화제를 낳으며 연재되고 있는 「임격정」을 보고 하는 얘기였다. 그는 매일 연재되는 그것을 보며 낮은 탄성을 내뿜거나 고개를 끄덕이기가 한두번이 아니었다고 했다. 그의 탄성을 자아내게 하는 것은 사실미가 번뜩이는 그림솜씨와 국화 특유의 박진감 넘치는 구성력과 같은 만화다운 재미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이 작가의 '역사를 보는' 뛰어난 '해석력' 때문인 것 같았다. 이씨의 역사대하물들은 소설을 저본으로 삼되 소설의 즐거움을 그저 따라만 가는 '단순한 재현'이 아니라 인물의 행위를 변형시키거나 줄거리를 다소 첨삭하거나 주안점을 달리두는 일과 같이 원전을 충분히 소화한 다음 자신의 역사관에 따라 재창조해낸 '또다른 창작물'이기 때문이다.

어른과 어린이에게 동시에 사랑받는 작가

이처럼 이씨는 역사만화가 드문 우리 만화계에서 우리 고유의 '바지저고리'를 입은 캐릭터만을 고집하며 처음부터 지금까지 줄곧 역사물만을 그려왔고, 역사물을 그리되 만화를 통해 배울 수 있게 하는 경지로까지 올려놓은 탁월한 '역사극화 작가'로 정평나 있다. 그의 이런 만화가로서의 특징은 성인물에만 국한되지 않고 아동용 대상으로 한 오락물이나 역사교육물에도 꼭같이 적용된다. 그가 92년 5월부터 1년간 어린이잡지 「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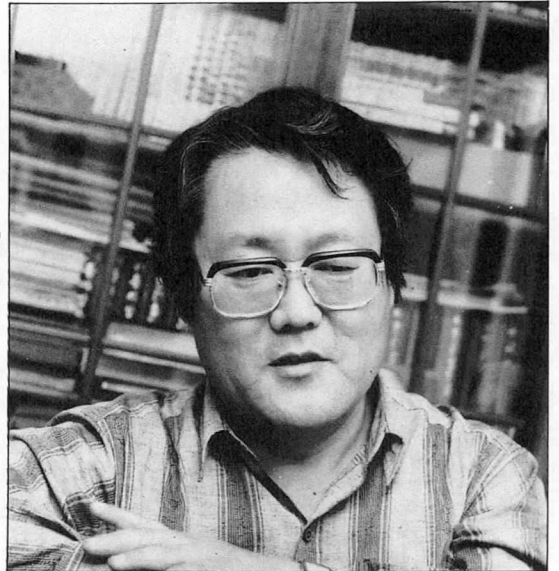
왕국」에 연재했던 「두손이」는 이같은 그의 우리네 지난 삶에 대한 애정과 아이들에 대한 따스한 마음이 배어있는 작품이다. 주인공 '두손이'가 조선조 말기 서양인들의 우리문화 재 도굴을 재치있게 물리치고, 서양의 앞선 지식을 배우기 위해 유학을 떠난다는 줄거리의 이 작품으로 이씨는 서울YWCA가 지난 한해동안 어린이들 사이에서 재미있게 읽고, 학부모들의 모니터 결과 교육적으로 우수하다고 평가되는 만화의 작가에게 주는 '우수어린이만화작가상'(제6회)을 받았다. "현대사를 향한 지난한 행로를 투철한 역사의식으로 그려내면서 우리조상의 지혜와 민족적 자존심을 살려준 점이 소중히 평가된다"는 게 수상 이유였다.

지난 88년 제정된 이 상은 올해로 6회째로 맞으며 일본만화에 휩쓸릴 뻔한 우리만화계에 뜻대 구실을 해왔는데, 이씨는 애니메이션으로도 제작돼 크게 인기를 누렸던 「머털도사와 포매」로 89년도에도 이 상을 수상했다. 그러니까 그로서는 똑같은 상을 연거푸 받은 셈인데, "국내작가를 '장려'한다는 의미에서도 중복 수상은 하지 않겠다"는 그의 고사에도 불구하고 주최측인 서울Y는 한해 동안 열심히 창작활동을 한 '우수' 작가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중복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며 이번엔 다시 상을 안겼다고 한다.

철저한 고증거쳐 완벽하게 시대를 재현

무엇이 그를 '탁월한 역사극화 작가'로 불리게 하고 한번 받기도 힘든 상을 떠맡기듯 두번씩 받게 하는 걸까. 그에 대한 해답의 일

사람들이 그를 일러 탁월한 역사극화 작가라 일컫는 것은 그의 만화가 소설을 저본으로 삼되 이야기의 즐거움을 따라만 가는 '단순한 재현'이 아니라, 인물의 행위를 변형시키거나 줄거리를 다소 첨삭하는 일과 같이 원전을 충분히 소화한 다음 자신의 역사관에 따라 재창조해낸 '또다른 창작물'이기 때문이다.



이두호씨

마쭈는 그가 새벽 6시(차가 막힐까봐)에 출근해 밤 10시까지 머물러 있는 후암동의 작업실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15평 남짓한 작업실의 사방 벽면은 「민족문화대백과사전」 「국역 대동야승」 「국역 연려실기술」 「한국복식사」와 같은 국학·민속학관련 저술들을 비롯해서 그가 한때 우리말을 익히기 위해 대학노트에 일일이 옮겨적었다는 3천페이지도 더 넘는 「국어대사전」과 「한국무속사전」 「방언사전」 「야생화도감」 「속담사전」들이 널려 있다. 여기에서 그는 '이씨녀'(「객주」에 나오는 무당)가 '당곳' 하는 장면 하나를 그리기 위해 여러 자료를 뒤적이고, 독자들로서는 요령부득의 당시말이나 늑진늑진한 순우리말의 뜻을 찾아내기도 한다. 소설가가 죽인 인물을 살려내 새롭게 이야기를 풀낼 줄 아는 능력도 이런

엄청난 작업배경에서 생겨난다.

그는 문하생을 두지 않고 작업하는 만화가로도 유명한데 "일부러 두지 않아서가 아니라 일일의 고증해가며 그려야 하는 역사물의 어려움 때문에 진득하게 붙어있는 젊은이들이 드물기" 때문이다. 많을 때는 예닐곱명도 함께 일했는데 지금은 한 명으로 줄여 그때 사용했던 책상앞엔 빈의자만 덩그러니 놓여 있다. '탁배기' 맛 같이 질편하고 유장하기 그지없는 '민초'들의 삶에 깊은 애착을 보여온 그는 요즘 대학다니는 딸이 녹음해준 정동주의 「단야」를 '듣고' 최근 사온 「아라비아 나이트」를 읽으며, 새벽이면 초읽기에 돌입하듯 조간신문 연재만화를 그린다곤 한다.

—정혜옥 기자

앤 밴크로프트 / 양역권 옮김 / 6,500원

20세기의 신비사상가들

〈나〉는 누구인가를 일깨우는 신비사상가 15인의 삶과 가르침



라마나 마하리쉬, 크리슈나무르티, 테야르 드 샤르댕, 앨런 왓츠, 구르지에프, 초감 트롱빠, 마틴 부버, 루돌프 슈타이너, 카스타네다, 올더스 헉슬리, 마더 테레사, 다이온 포춘, 토머스 머턴, 팍 수부, 메허 바바. -이들 15인의 성자와 신비가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가르침의 핵심과 압축된 전기로 구성한 20세기의 정신세계 조감도.

정신세계사에서 어떤 책이 새로 나왔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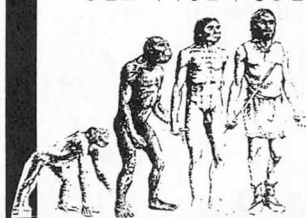
전화 733-3135 팩시 739-8791 정신세계 전문
「책방 정신세계」 741-7033(통신판매회원제 운영)

헬렌 피셔 / 박매영 옮김 / 6,000원

성의 계약

인간의 진화를 보는 새로운 관점

"당신은 대단한 부자인가? 유능한 커리어 우먼인가? 촉망받는 수재인가? 하지만 그런 것은 자연계에서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 그러나 당신이 선택하다면 당신은 적자생존에 성공할 진화의 주역이다"



- '성의 계약(sex contract)'이라는 독특한 개념을 중심으로 살펴본 인간의 성행동, 가족, 사회조직, 언어, 감정의 기원. 여성 중심의 새로운 인류 진화론.